

-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통권 제 162호

발행일 : 2006년 2월 19일

발행처 :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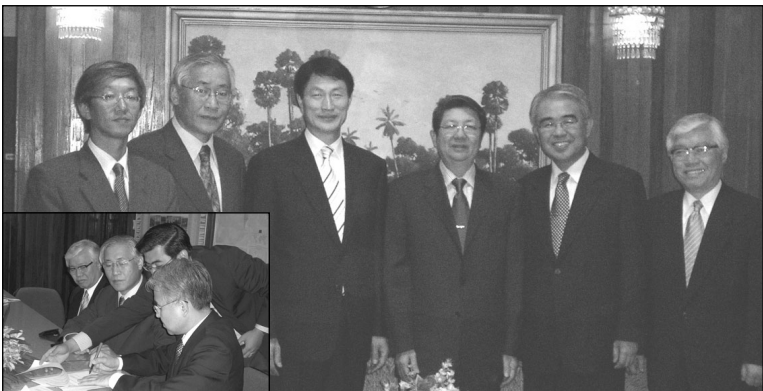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여 의료선교사업 추진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및 선교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와 함께 현지의 여러 가지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의료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주님의교회는 연차적으로 미화 100만달러(약 1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의료선교에 필요한 건물과 이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양측은 이 합의를 기본으로 하여 실무진을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3면에서 계속)



지난 2월 7-11일, 문동학 담임목사와 권오승, 한윤경 장로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부총리 속 안(SOK AN)을 만났다. 방문의 목적은 캄보디아 의료 선교 사업 지원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였다. 그동안 주님의교회는 캄보디아 현지의 병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외국인의 토지 구입을 불허하고 있을 뿐 더러 최근 몇 년간 토지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어 부지 매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방문의 의미는 주님의교회의 캄보디아 의료선교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 과정으로, 캄보디아 정부

주차 문화 만들기 시리즈1 2면



자동차 홍수의 시대, 함께 만들어 가는 주차문화가 안전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양육클래스 안내 4면

이번 봄 학기는 3월 12일 주일부터 16주의 과정을 시작한다.

중보기도 사역팀 월례회 4면

「사랑하는 선생님께」 졸업 앞둔 한 제자의 편지 3면

홍민기목사, 신앙교육지침서 출간 4면

오늘 오후 4시, 30CUP 예배

백합화의 환호성, “나는 행복합니다!”



김현령목사는 지난 1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전했던 ‘까마귀의 고민’에 이어, 같은 본문으로 “까마귀의 고민2” “백합화의 환호성, 나는 행복합니다.”를 전하게 된다.

김목사는 지난달 설교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 즉 ‘복음전파’와 ‘나그네의 위로’라는 선물을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늘 예배에서는 지난 설교의 연장선에서 나그네를 위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전하게 된다고 한다. 30CUP 예배는 30대뿐 아니라 찬양과 말씀, 간

절한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탁아방 운영과 영화상영을 하고 있다. 오늘 3시 50분에 중예배실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애니메이션 “치킨 런”이다. 닭들의 흥미진진한 탈출기를 재미와 감동으로 전하는 이 영화는 구약성경의 출애굽기를 연상케 한다.

현재 30대 사역팀은 매주일 오후 1시 15분부터 2시까지 1층의 제3집회실에서 셀연합모임을 갖고, 주중 혹은 주일에 교회와 가정에서 셀모임을 하고 있다. 교재는 헨리나우엔의 “영적 발달”으로 김목사가 재구성한 나눔 자료와 함께 셀장의 인도로 진행된다. 지난주일 셀 연합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MBTI 성격유형검사를 받았다. MBTI는 성격의 장애 및 성숙의 정도를 판단하는 진단자료가 아닌, 과학적인 근거로 분류된 16가지 유형을 파악하는 ‘비진단 검사자료’이다. 오늘 30CUP 예배 전, 셀연합모임에서는 전문강사를 초대해서 지난 주 검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성격 유형의 장단점과 자신과 가까운 성격 유형의 특성에 대해 강의를 듣게 된다.

(3면에서 계속)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위한 4부예배



‘오늘’은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소중한 도구이자 예배 그 자체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로 초대하십시오. 4부예배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2006년 2월 19일 주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_ 오늘연주팀

“헌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_ 차혜련 엄승용 정도일

“헌금 무서워 발 못 담근다” (신명기 14:22-29) _ 문동학목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_ 오늘연주팀

함즐함울 광고

2월 26일 운영시스템 정비를 위해 휴간합니다.

Misson 함줄함줄, 표준어사용 시리즈 2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장소 등을 안내하거나 계획 등을 설명할 때 흔히 하는 말 중, ‘겠습니다.’가 있다. “여기는 정신학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교의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와 같은 것이다.

‘겠’은, “내일쯤 비가 내리겠습니다.”처럼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정’을 나타낼 때나, “첫눈이 오면 가겠습니다.”처럼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낼 때 쓴다. 이 외에는 ‘겠’을 쓰지 않는 게 깔끔하다. 위의 예문의 “이곳은 ~ 강당이 되겠습니다.”는 “이곳은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강당입니다.”로 사용해야 하고 “이 내용은 선교의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의 표현은 “이 내용은 선교의 기본 계획입니다.”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기사는 수원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의 성제훈박사의 이메일 자료에 기초, 교회의 실정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오늘 기도



‘금’은 많은 슬픔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골과 송이골보다 더 달도다
...주님! 성경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생생시킴을 믿습니다.

[즐거운 교회생활 캠페인3] 주차 문화 만들기 시리즈

NO! 주정차, NO! 운전 중 이동전화, NO! 개구리 주차*, YES! 방향지시등과 친절한 미소

우리 교회는 교회 내외부에 약 1,0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일이 되면 여전히 주차와 차량통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함줄함줄은 주차안내부와 함께 주차 현실의 이해를 돕고 혹시라도 생길 수도 있는 주차안내부원과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몇 회에 걸쳐 주차와 관련된 몇 가지 원칙들을 사진과 함께 연재할 것이다.

정문앞: 이곳은 차량은 물론, 교인과 지역주민의 통행이 많아서 사고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다. 들고 나는 차량 들은 반드시 방향 지시등(깜빡이)을 켜고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예배 시작 전 교회 내부로의 차량 진입이 원활치 못하면 순식간에 종합 운동장 앞 도로까지 차량이 밀리게 된다. 실제로 이곳은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예배 후,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삼가야 하며 보행자 또한 반드시 보행자 통로를 이용하여 교회 정문을 통과해야 한다.



교정: 교정 쪽에 주차를 할 때는 최대한 경계선 쪽으로 바짝 붙이되, 개구리 주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한다. 병렬 주차 시 기어는 중립, 주차 브레이크는 풀어 놓되 밀어서 이동이 되지 않는 차량은 미리 주차 안내부원에게 알려야 한다.



교회주위: 교회건물 동쪽 순환로는 전면 주차를, 서쪽(운동장 측)은 후면주차를 기본으로 한다. 통행 공간이 좁은 교회 북쪽 통로는 어떤 경우에도 주차를 금한다. 교회건물 정문 부분은 워낙 차량의 통행이 많아서 병렬 주차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병렬 주차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기어 중립과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 놓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 하며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선적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운동장: 비가 오는 날이나 운동장이 많이 젖어 있는 날에는 운동장에 주차를 할 수 없다. 또한 학기 중에는 주일 1시 반부터 유소년 축구팀이 운동장을 사용하므로 1시 15분까지는 운동장에 주차 되어 있는 모든 차량을 운동장 오른쪽 끝부분이나 교정 안으로 이동 주차 시켜야 한다. 운동장 동쪽 초록색 천막 지붕이 있는 곳(A)과 서쪽 골프 연습장 옆, 넓이 뛰기 연습장(B)은 구름판이나 나무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는 물론 차량통행도 금하고 있다. 평일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회는 학교와 협의하여 운동장 남쪽 배구 코트에서 시작하여 스탠드를 따라 테니스 코트까지 연결된 주차선 안(C)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약속하였다.

*개구리 주차: 인도와 차도를 걸쳐 주차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



방과후학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학생들이 주인공



방과후학교는 주님의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2시부터 6시, 혹은 주일 1시부터 4시30분(일부과목)까지 진행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영어, 수학, 논술, 물리, 화학, 일어, 플롯, 미술 등의 수업이 있으며, 현재는 26명의 교사들과 5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토요일 1시부터 유아부실에서 교사기도회가 시작되고, 2시부터 2층의 각 수련실에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한다. 수업 시간은 50분이고, 과목마다 공부방처럼 소수의 학생

들과 교사가 함께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보와 지식의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의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고 있다.

올 2006년에는 학생들과 같이 전시장이나 음악회관람 등, 문화예술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방과후학교를 섬기는 집사들과 권사들, 교사들은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새 학기를 맞아 방과후학교를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방과후학교는 자질과 의욕은 있으나 여건이 되지 않는 주변지역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열린 공간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11-9638-8719로 할 수 있다.

(1면에 이어서)

주님의교회,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여 의료선교사업 추진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및 선교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우리측 실무진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열린 임시당회를 통해 선교사업본부장인 한윤경장로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의료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의사, 법조인, 경영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국교회가 캄보디아에 병원을 세우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교회를 비롯, 많은 한국교회가 단기 선교를 통해 의료 선교 활동을 해왔

으며, 최근에는 '햇불병원'과 '나우병원' 등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선교병원들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개원했다. 우리교회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및 선교활동을 하게 되며 이것을 발판으로 주님의교회의 해외선교센터와 현지 의사 양성 등 다양한 선교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1면에 이어서)

오늘 오후 4시, 30CUP 예배

백합화의 환호성, “나는 행복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역시 공동체로 함께 사역한다. 찬양팀원들은 매일 셋째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회와 리허설 시간을 각각 갖는다. 팀원들은 기도회 시간을 통해 이 달의 주제말씀을 먼저 접하고, 그것을 통해 삶을 나누게 된다. 또한 공

동체와 예배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리허설 시간에는 찬양인도자가 주제에 맞게 준비한 찬양을 함께 부르며 음악적인 정교함은 물론 영성의 깊이를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다. 공석이었던 30대 사역팀의 팀장은 김용진집사가 맡게 되었다.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편지, 중등부를 졸업하는 한 제자의 고백

“제 길이 바뀔지도 모르는 순간에 선생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광실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고등학생이 되면서 앞으로 선생님과도 자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사실 쓰다가 틀려서 두 장은 버렸고 세 번째 다시 써요)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우선 한 해 동안 엄마처럼, 친구처럼 우리 반 보살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선생님이 계셔서 교회 가는 것이 항상 즐거웠고 신앙도 분명 성숙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어쩌면 제 길이 바뀔지도 모르는 중요한 한 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귀한 시간에 선생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도 그렇고 많이 두려웠지만 항상 뒤에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이 생겨요. 고등학교 가서도 중3때 쌓은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더 굳건해 질 수 있도록 항상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 와 성경 읽기도 매일 하고, 질서도 잘 지키고, 하나님과 내 것도 잘 구별하려고 노력할게요. 선생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하나님도 그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선생님과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고, 하나님과 스스로 했던 약속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지식을 많이 쌓는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또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항상 선생님을 기억하고 기도할게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길...

선생님 사랑합니다.

2005년 2월 18일 김소연 올림

소개의글

어와나 전미이 전도사



안녕하세요? 2006년부터 주님의교회 어와나의 전도사를 맡게 된 전미이입니다. 저의 가족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결혼한 간호사 언니, 군에 간 남동생 그리고 둘째 딸 저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도배라는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자녀만큼은 가난 때문에 학업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늘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 '넉넉' 하지도 그리 '부족' 하지도 않음을 채워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경험하면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유쾌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 제 삶의 목자는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제 삶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이, 그리고 앞으로의 제 삶에 부족함이 없

는 이유는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또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제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든지 죽든지 제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저는 복음의 빛 안에서 이 시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기독교가정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어와나”는 “Approved Are Not Ashamed”의 약자입니다.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란 뜻입니다. 우리 어와나 친구들이 그 이름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지면으로나마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와나”의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이 전도사는 학부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신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중보기도 사역팀 월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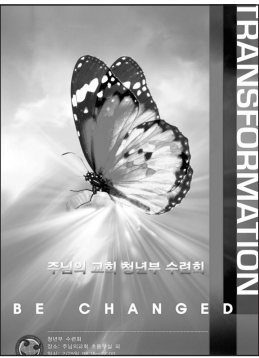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유치부실에서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정기기도 모임을 갖는다. 지난 2월 9일 오전 10시에는 44명의 기도 일꾼들이 정명환 목사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했다. 이어 정 목사는 요엘 2:18~27절의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의 공간에 무엇이 가득 찼나?’ 생각해 보라는 도전을 주면서, 사역자 자신이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절망과 고독 가운데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심령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고 전했다. 함께 모인 사역자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내 영혼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여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구했고 주님의교회와 구역역을 돌보며 애쓰는 구역장들,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다.

중보기도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매일 6층 중보기도실에서 40여명의 기도일꾼들이 시간을 정해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중보기도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중보기도 신청서 [기도해주세요]를 작성하여 중보기도신청함에 넣으면 된다. 중보기도 신청함은 1층 로비의 설만한 물가 입구 앞 기둥과 엘리베이터 앞 정면에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는 기도신청서와 응답카드 [기도응답]이 비치되어 있다. 중보기도신청서에 기재된 일체의 내용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 중보기도 사역팀은 공동체와 개인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연합을 더해가고 있다.

청년공동체 일일 특별 수련회 열린다.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심는 특별한 날로”



오는 2월 25일 토요일 새벽 6:15분 청년부흥새벽기도를 시작으로 “변화(Transformation)”라는 주제의 청년부 일일 특별 수련회가 열린다. 오전에는 특별히 전문 강사를 초대하여 새로운 자아 발견을 위한 성격 유형 테스트인 애니어그램 검사와 진단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복음 안에서 찾기 위한 특별강의와 워크샵이 준비되어 있다. 저녁은 말씀, 찬양, 기도

로 하나되는 영적 대각성 집회 시간이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이 시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청년공동체가 주관하는 이번 수련회는 청년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청년들을 포함, 교회의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역시, 매일 아침 청년새벽기도회의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정성된 식사를 준비하게 된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은성목사는 많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도들의 기도 지원을 통해, 그 날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홍민기목사 “자녀교육에 왕도가 있다.” 출간
“탱크가 세속화된 자녀교육을 날려 버리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홍민기 목사는 그의 세 번째 저서, “자녀 교육에 왕도가 있다”를 발간했다. 그는 다년간 국내외 청소년들과의 만남과 사역을 토대로, 실제적인 자녀교육의 신앙적 지침서를 펴냈다. 특별히 이 책은 부모의 변화

와 신앙성숙을 강조하면서 부모의 변화 없이는 자녀가 변할 수 없다고 말한다. 크리스천 부모는 자녀의 성적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녀교육에 관한 거룩한 고집을 욕심내야 한다고 말한다. ‘탱크목사 종교등부 혁명’, ‘교사의 힘’에 이어 규장출판사에서 발간된 “자녀교육에 왕도가 있다”는 세속화 되는 자녀교육의 기준에 일침을 가하는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설만한 물가와 대형서점을 비롯,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아버지학교

아버지학교가 주님의교회에서 2월12일부터 시작되었다. 120여명의 아버지들이 참석, ‘참된 아버지를 찾아서’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기쁨의 웃음과 후회의 눈물로 동참했다. 지난주일 첫 모임은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주제였다. 강의는 신명기 5:9~10(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를 인용, 이 말씀을 죄와 의의 유전적 대물림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아버지의 모습은 선하던 악하던 당대와 후대의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했다. 모든 아버지가 기억해야 할 이 주제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 왔는지와 그 관계를 통해 맺은 삶의 열매들을 돌아보게 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가 된 그들이 과연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씨앗을 심고 있는지 생각하게 했다. 혹 과거에 아

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줄 경험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도전은 강의를 더욱 흥미롭고 진지하게 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면, 다음 세대는 반복되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더욱 건강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뜻을 같이 했다. 오늘은 아버지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남성’이라는 주제로 이어진다.

주님의교회 양육과정



주님의교회 양육과정은 봄과 가을, 신앙과 문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 한다. 이 과정은 믿음의 기초와 교회생활의 안내, 성경의 이해, 말씀의 실천, 복음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일부 과목은 교회가 낯선 이웃에게 복음전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봄 학기는 3월 12일 주일부터 16주의 과정을 시작된다. 일부과목은 과목의 성격과 특성상 기간을 제한하기도 한다. 각 과정은 필수 및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교역자와 평신도지도자가 강의를 맡는다. 원하는 강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은 없다. 장기적으로 필수과목이수는 부서/팀장 임명 및 임직자 선거추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목양사역본부는 전한다.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지로 제작될 것이다.

과정	목 적	내 용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100	하 나 됨 Coming to Christ	신앙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의미와 방법을 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생활과 소그룹 모임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이웃을 교회로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새가족모임 세례교육 구역모임 다양한 문화강좌
200	성 숙 Learning in Church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이해합니다 성경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제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개요 신약개요 제자의 삶 개별성경, 신앙성숙
300	섬 김 Working for Community	성경의 지식을 삶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신앙훈련입니다 나의 영적인 재능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통한 봉사와 섬김의 장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사역자와 리더로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은사/사역 세미나 교사훈련원 구역이끄미모임 소그룹사역훈련 사역이론/현장 훈련
400	섬 김 Going with Christ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낯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관계성 가운데 말씀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단기선교훈련